발행인 최순삼 / 편집인 김진성 / 발행일 2010월 3월 15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 905-0218 (fax227-0650)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식

http://blue21.or.kr

제14호
2010년 3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인사말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이미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지난 2005년 2월 18일 전북대 한 강의실에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을 창립한지 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원의 모체가 되었던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가 출발한 시점을 합하면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원들도 많이 늘었고 사무실도 3번이나 이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연인원 5000여명의 청소년, 1000여명의 교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명실상부한 교육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얼마나 많은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까? 초창기에는 모든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창립회원들의 5천만원 기금마련, 청소년통일한마당 행사를 치루기 위해 꼬박 2달씩 매달려서 준비해준 통일팀, 출장비도 수고비도 없이 3박4일씩 아이들과 함께 해준 초·중등 독서캠프팀 그리고 초등논술연수팀, 고른기회 사업팀…그 결과 통일과 독서를 매개로 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은 우리 문화원의 대표적인 명품 사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건강을 해치게 한 점은 무어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회원 여러분!

MB정부가 출범한 지난 2년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요. 지난 86년 전북교육민주화선언을 하던 그 당시의 정책(일제고사, 보충자율학습 강화, 학생, 교사의 교육권 침해…)이 다시 부활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교사 초빙제를 보면, 90년대 징계를 무릅쓰고 투쟁해서 철폐시켰던 교장동의내신제 투쟁이 떠오릅니다. 또 최근 익산, 군산의 자율형 사립학교 신청 운운은 지난 90년대 초 일 년여에 걸친 익산의 고교평준화투쟁의 승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이니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그 당시 탄압의 당사자 또는 측근들이 전북교육계 요직에서 아직도 큰소리를 치고 있음에 어찌 참담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 투쟁의 주역들 대부분이 우리 문화원의 회원들임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25여년의 교육민주화운동과 참교육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교육 현실에 분노와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도 서거하게 한 정부, 어떠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을 의사가 없는 정부를 보면서 국민들 대다수도 무기력해 있는 것 아닙니까? 과거 끔찍했던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후배들이, 다른 단체가 싸워주길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누구도 싸울 수 없을 거라는 회의로 희망을 갖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지난 2년간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고른기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준 회원들께는 정말로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회원 여러분!

그러나 더 이상 역사를 되돌리려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매야 합니다. 이제 내 어깨에 교육희망이 달려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다시 시작해봅시다. 최근 벌어진 졸업빵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의 모습을, 교육현실을 재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마치 아이들의 폭력성과 학교의 무책임으로만 몰아가는 비이성적 사회를 고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문화원은 교육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 되어가고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문화원이 나서서 올바른 교육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원 창립 10주년이 되는 2015년, 우리 단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번듯하고 내실있는 교육연수원(학부모, 교사를 위한)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10년 후, 2020년의 교육현장은, 청소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꿈을 갖고 전진하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있기에 희망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열심히 뛰어봅시다.

감사합니다.

2010. 3

... 과거 끔찍했던 권위주의 정부로 회귀하고 있는, 교육 현장을 목도하면서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후배들이, 다른 단체가 싸워주길 바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누구도 싸울 수 없을 거라는 회의로 희망을 갖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목차

002 **인사말** / 이미영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이곳에서는

004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열다. '시대의 길을 묻다 '
제 22회 이사회 열려
2009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보고대회 열려
'제 5회 전북청소년 교육문화원의 밤' 성황리에 열려
창립 5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새 출발

007 **기획/특집 1 /** 겨울방학교사 아카데미 간략 정리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
지성에게 이 시대의 길을 묻다

010 **기획/특집 2 /** 문화원, 2010 고른기회 배움터로 선정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012 2010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업계획
013 2010년 집행부 및 임원 소개
014 **교육시론** / 참된 '권위(權威)'가 있는 교육감을 원한다.
016 **기행 참가기** / 생태자원의 보고 순천만 기행을 다녀와서
018 **인물탐방** / 함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
이영환 · 노영윤 선생님을 생각하다
020 **문화다시보기** / 2010, 아이들과 이 영화 보며, 함께 자라 볼까요?
022 **장재성선생님의 통일이야기** / 남북국시대와 정상회담
023 **탐방 인터뷰** / 겸양지덕(謙讓之德)의 본(本)=유춘재 선생님
024 창립 5주년 기념 메세지
025 **조경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들꽃이야기** / 현호색
026 회원동정 / 교육단체 소식 / 인사동정
028 **생태만화** / 꼬마 애벌레 말캉이
030 '놀토'를 책이랑! 친구랑! **청소년 독서교실**
031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원서

이곳에서는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 열다

시대의 길을 묻다

세상 돌아가는 게 좀 갑갑한 상황!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와 민주주의 역주행, 토론과 논의가 사라져버린 사회, 갈수록 입시 경쟁 교육이 강화되는 현실...

이런 모습 속에서 교사들마저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시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를 열었다.

총 4차례에 걸쳐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는 2009년 12월 15일, **신경민**(MBC 아나운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2차 "아빠의 눈으로 본 미국교육" 강사 :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3차 "역사, 삶을 만나다." : **남경태**(인문교양서 저술가), 그리고 마지막 4차는 "한국 근현대사로 풀어본 한국, 한국인"를 주제로 **강준만**(전북대) 교수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이번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를 통해 본원은 이 시대 지성의 삶의 가치관과, 사회와 교육의 비전을 듣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와 교육의 전망을 찾고자 하였다.

앞으로 우리 문화원은 우리의 삶과 교육, 사회의 비젼을 찾기 위한 교사 아카데미, 초청강연회를 2010년에도 꾸준히 열 계획이다. <관련기사 7면>

제 22회 이사회 열려

전라북도 교육의 대안세력으로 비영리 교육 NGO단체를 지향하는 우리 문화원은 제22회 이사회를 **지난 1월 29일 저녁 7시부터 9시30분까지 근영여고 앞 3층에 위치한 사무실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미영 이사장을 비롯하여 총 15명의 이사 중 11명이 참여하였다. 안건으로 2009년도 결산 건, 2010년도 예산 건, 2009년도 사업평가 건, 2010년도 사업계획 건 처리 되었다.

2009년도 결산 건에 관해서는 조경희, 남상팔 내부감사가 이사회 12일전에 약 3시간 정도 충분하게 2009년도 사업과 예산 결산 서류감사를 하였다. **남상팔** 감사의 내부감사 결과설명을 토대로 심의가 이루어졌다. **최병흔** 이사가 연대사업비와 회원경조사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사무처의 충분한 설명으로 답변이 이루어 졌으며, 2010년도에는 회원연수에 더 많은 예산집행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2010년도 예산안 건은 2009년 보다 회원을 50명 증가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고른 기회 사업보조금과 체험학습, 통일한마당 사업보조금에 관한 예산편성에 관하여 심의하였다. 특히 초등중심 체험학습 보조금 사업집행에서는 좀 더 세심한 사업집행내역을 포함하는 예산안을 주문하였다.

2009년도 사업평가 안은 **최선호** 정책실장의 20분 정도의 평가 설명이 있었다. 삼성 고른 기회 사업과 맞물리면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에 관한 정책토론회, 소외계층아이들 중심의 각 종 독서교육활동, 체험활동, 교사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교사연수 등이 성과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를 비롯한 소모임 관련 회원들의 헌신적인 사업수행에 이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2010년도 사업계획 안 역시 정책실장의 설명이 이루어졌다. 주요사업으로는 6월 2일 지방교육자치 핵심으로 교육감, 교육위원 주민직선에 관하여 4월말 경에 교육자치에 관한 정책토론회, 삼성 고른 기회 사업선정으로 작년과 같은 학교독서교실, 독서캠프운영, 독서문화기행 외에도 단위학교에서 교사 소외계층아이들과 멘토를 하면서 독서교육활동을 하는 사업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외에 올해 10회째를 맞이하는 통일한마당행사, 갈수록 회원들의 관심과 중요성이 더해지는 교사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하는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리고 조직의 힘은 정책역량과 재정역량에서 나옴을 확인하면서 언제나 강조되는 사업으로 회원확보를 위한 조직사업에 대한 논의와 결의가 있었다.

이사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자는 결의를 하면서 제22회 이사회가 2시간 30분정도의 회의를 마치게 되었다.

2009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보고대회 열려

12월 3일 문화원의 밤 행사와 함께 **'2009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보고대회'**가 열렸다. 2009 고른기회배움터 사업은 본원 등 8개 단체가 연합하여 **"교육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독서문화체험교육"이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부터 8천여만을 지원 받고,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2,000만원을 지원받아 실행하게 되었다.

어린이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청소년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청소년독서토론대회, 농촌체험교실, 통일역사독서교실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다채롭게 독서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학교 단위의 학교독서문화교실이 초등 6개교, 중등 9개교 등 15개교에서 열려 독서교육과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 각 학교별로 1년 동안 진행된 독서문화교실 등 사업에 대한 전시회가 열리기도 해 한 층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날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에 대해 보고한 본원 **최선호** 정책기획실장은 "독서가 단지 책읽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지적능력, 문화적 감수성, 자존감 등의 심리정서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독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교생활 만족도와 학력 신장, 심리정서적 안정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앞으로 본원은 소외계층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입시교육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교육 차원에서 독서문화교육을 좀 더 성과 있게 전개할 예정이다.

'제 5회 전북청소년 교육문화원의 밤' 성황리에 열려

200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밤"이 12월 3일(목) 오후 4시에 본원 교육실에서** 100여명의 회원, 시민 그리고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장인 본원 교육실에는 2009년 한 해 동안 각 학교에서, 문화원 교육실에서, 여러 행사장에서 1년간 문화원 가족들이 아이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던 결과물 전시회가 열려 자리를 풍성하게 했다.

이어 이어진 문화원의 밤 행사에서 본원 **이미영**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어려운 여건에서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청소년통일한마당, 교사 연수 등 여러 사업을 성과 있게 진행했다"며 2010년에도 2009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문화원의 밤 중요 행사로 **'제5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은 한 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 인식을 드높이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을 발굴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 문화와 전북교육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자 본원이 제정하여 시상해오고 있는 상이다.

이날 '제 5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에는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무국장 **이종원**님이 선정되어 시상하였다. 이종원님은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촌교육의 발전에 대한 연구와 실천, 지역사회와 농촌 소규모 학교가 서로 소통하며 농촌학교살리기의 새로운 모델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해왔다.

이종원님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특히 소외된 아이들, 농촌지역 아이들이 교육에서만큼은 소외를 받지 않도록 지역사회, 학교 등과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후 문화원의 밤에 참여한 사람들은 문화원 교육실에서 준비한 저녁식사를 하고 , 막걸리를 한 잔 기울이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친목을 다졌다.

창립 5주년 기념식 및 2010년 정기총회 개최

창립 5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새 출발

2월 22일(월) 오후 4시, 본원 교육실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5주년 기념식과 제 6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0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활동과 전북교육의 희망 찾기를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였다.

1부순서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실시했다. 창립 5주년 영상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의 문화원의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이미영**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문화원이 해 온 모든 일들이 모든 회원들의 물심양면의 헌신과 노력의 결과라 그 동안 노력해온 여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지난 2년의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고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고른기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준 회원들께 정말 감사들 드린다는 말씀과 더불어 잘못되어가고 있는 교육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시민과 학부모의 동의와 실천이 중요하기에 올바른 교육시민단체 구성을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우리의 꿈을 위해 올 한해도 열심히 뛰어보자고 이야기하였다. 이어 창립 5주년 축하 떡 절단식을 가졌다. 중간 중간 행운권 추첨으로 행사 분위기는 더욱 유쾌하게 이어졌다.

2부 정기 총회에서는 2009년 주요 활동보고, 2010년 사업계획보고, 결산보고 및 예산보고, 2009년 감사보고, 집행부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총회에서 공로상(**이영환**-2008,2009년 사무처장)과 으뜸회원상(**노영윤**-김제초처초, **유춘재**-동계고)이 수여되었다.

앞으로 회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교육소외계층 교육지원을 통해 소외된 아동 청소년들의 삶을 보듬어주고, 어린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며 전북교육네트워크 구성과 교육자치 선거에 대한 발전적 고민과 실천을 통해 전북 교육에 대안을 제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겨울 교사아카데미 간략 정리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

지성에게 이 시대의 길을 묻다

다양한 교사연수를 통해 교원의 교육전문성 향상에 노력해 온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초청강연회 등의 성과를 이어, 2009『겨울 교사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겨울 교사 아카데미』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위기, 교육의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 각 분야와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의미에서 "이 시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1차	12월 15일(화)	**언론**, 언론과 사회 **신경민**(MBC 아나운서)
2차	12월 22일(화)	**교육**, "아빠가 본 미국교육"(도서) **이경한**(전주교대 교수)
3차	1월 5일(화)	**역사**, 역사, 삶을 만나다 **남경태**(인문서 저술가)
4차	1월 12일(화)	**언론**, 사회한국 근현대사로 풀어본 한국. 한국인 **강준만**(전북대 교수)

언론의 중요성, 그리고 언론 장악의 현실과 대응

신경민
(MBC 아나운서)

신경민 아나운서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언론법" "MBC 사태"를 예로 들며 우리 사회가 과거로 U턴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미디어의 구조, 방송의 구조와 모두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보신각 제야의 종 분위기는 예년과 달랐습니다. 각종 구호에 만 여 경찰이 막아섰고요. 소란과 소음을 지워버린 중계방송이 있었습니다. 화면의 사실이 현장의 진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언론 특히 방송의 구조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시청자들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현장 실습 교재로 열공했습니다." - 2009 1월 1일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맨트

『겨울 교사 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사는 MBC 뉴스데스크 메인 앵커로 1년여 동안 활동했으며, 최근에는 클로징 멘트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라는 책을 쓴 신경민 아나운서(MBC)였다. 신경민 아나운서는 "앵커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진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해설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경민 아나운서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 "언론법" "MBC 사태"를 예로 들며 우리사회가 과거로 U턴하고 역주행하는 것은 미디어의 구조, 방송의 구조와 모두 맞물려 있다"고 주장한다.

신경민 아나운서는 이어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언론이 낱낱이 써야 한다. 자신의 치부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써야 한다. 언론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언론이 써야 조금이라도 개선된다. 미국 워싱턴의 모든 아침회의는 뉴욕타임스나 NPR라디오 뉴스로 시작한다. 언론이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다. 우리도 그런 언론을 가질 수 있느냐? 결국 소비자들이 좋은 언론을 소비해주고 좋은 언론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시민과 소비자의 역할을 강조한다.

아빠의 눈으로 본 미국교육

이경한
(전주교대 교수)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청이 중학생용 핸드북과 고등학생 교육과정 자료집 을 학부모에게 제공, 학부모의 학교 방문 행사를 가지는 교육 주간 행사, 교과 담임교사와 상담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학부모 총회, 교육 내용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과정 등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은 우리 교육에서도 생각해 볼 점"

『겨울 교사 아카데미』 2차 주제는 교육이다. 문화원이 교육의 방향성과 대안을 고민하는 단체이기에 교육의 주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경쟁 강화 교육 정책으로 교육현장이 어지러운 시기에, 미국 교육의 현실을 통해 한국 교육을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이경한 교수는 교육자이면서 이 곳 전북지역 대표적 시민단체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시민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그는 2008년 미국 메릴랜드 연구교수로 있을 때, 자녀를 미국학교에 보내면서 보고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아빠의 눈으로 본 미국교육』을 집필하였으며, 이 책을 바탕으로 강연이 이루어졌다.

이경한 교수는 미국교육이 한국교육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다양한 수업반 운영을 통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수업을 받도록 하여 학생의 잠재력을 높이고자 하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는, 우열반 편성이 아닌 방향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수월성 교육을 위해 평준화 교육 정책을 뒤흔드는 것보다, 한 학교의 틀 안에서 수월성을 지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경한 교수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부모를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하는 노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교육청이 중학생용 핸드북과 고등학생 교육과정 자료집 을 학부모에게 제공, 학부모의 학교 방문 행사를 가지는 교육 주간 행사, 교과 담임교사와 상담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학부모 총회, 교육 내용에 대해 학부모의 동의를 받는 과정 등 학부모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은 우리 교육에서도 생각해 볼 점"이라고 말한다.

역사에는 지름길이 있을 뿐 결코 비약은 없다.

남경태
(인문서 저술가)

인문학 저술가 겸 번역가인 남경태 님은 <철학으로 본 바둑 에세이>, <위기의 지구>, <철학(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종횡무진 서양사>,<종횡무진 동양사>,<종횡무진 한국사>등을 저술 또는 번역한 파워 라이터 이다. 이번『겨울 교사 아카데미』3차 강연에서는 최근에 집필한 <역사(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강연을 하였다.

남경태 님은 강연에서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재해석이나 중요했던 순간들을 다룬 것이 아니라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명 축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규명하고 차이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개인의 의식적 행위가 역사적 무의식의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은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축으로 하는 서양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것이 바로 서양 문명을 세계 문명으로 이끈 힘이다."

그는 "서양의 분권적 권력, 민간 부분의 활성화, 갈등 조절과 타협, 시민 계급의 성장" 등의 요소가 동양에서 발전하지 않는 한 동양의 세계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에 반해 동양의 역사는 "국가를 유기체처럼 여기고 개인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받드는 생각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관점이다. 동양의 역사와 우리 역사에서는 늘 정치, 즉 나라의 경영이 모든 것보다 우선했고 일찍부터 관이 민을 지배하는 체제가 자리 잡았다. 공화국 전통 60년이 넘은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동양의 지배자는 권위에 기반 해 국가를 경영한 반면 서양의 지배자는 계약에 기반에 국가를 경영한다는 점이다.

그는 "서양의 분권적 권력, 민간 부분의 활성화, 갈등 조절과 타협, 시민 계급의 성장" 등의 요소가 동양에서 발전하지 않는 한 동양의 세계를 이끌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는 한 동양의 발전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역사에는 지름길이 있을 뿐 결코 비약은 없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인문학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문제의 발견과 인식에는 대단히 유용하며, 보이지 않는 지름길을 찾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국인은 누구이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강준만
(전북대 교수)

"출세욕이 나쁜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다." 라고 강준만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를 변호한다.
결국 "조급주의", "냉소주의", "학벌주의" 등 한국인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비판적 문제제기를 하고, 수많은 저서를 써 오고 있는 강준만(전북대) 교수를『겨울 교사 아카데미』4차 강연자로 어렵게 모셨다. 이날 강연에서 강준만 교수는 한국, 한국인의 특성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흔히들 사람들은 한국인이 가진 특성을 비판한다. "조급주의", "냉소주의", "출세주의", "학벌주의", "정실주의" "지도자 추종주의" 등 이를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기한다. 그러나 강준만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러한 한국인의 성향이 근현대사의 역사적 경험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기 위해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체득되어 형성되었다고 변호한다.

예를 들어 "출세주의"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일제 식민지나 6. 25 전쟁 의 영향으로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파괴되었다. 이 과정에서 급격한 신분의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이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주었고 그 수단으로 출세를 강조하게 된 것이다. 다시 출세를 위한 교육에 목숨을 거는 투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출세욕이 나쁜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오늘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다."라고 강준만 교수는 역설적으로 이를 변호한다.

결국 "조급주의", "냉소주의", "학벌주의" 등 한국인의 문제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표면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본질을 은폐할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기나긴 역사의 흐름에서 형성된 한국인의 특성이기에 그것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좀 더 깊고 명확히 이해했을 때 한국인이 가진 문제점에 대한 극복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문화원, 2010 고른기회 배움터로 선정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프로그램 운영

2008년부터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으로부터 고른기회 배움터로 지정되어 독서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성과있게 전개해 온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10년에도 고른기회 배움터로 최종 선정되었다.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을 주제로 소외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전개할 2010년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에는 1년 동안 7천만 원의 지원된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초등독서교사모임 "읽고살고",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2010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사업명** : 교육소외 아동·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독서·문화 교육"

2. **사업 목적**
   - 독서문화 프로그램 통한 교육소외 계층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 모델 마련.
   -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을 계발 시행.
   - 독서· 문화 활동 단체 간 교육네트워크를 더욱 확대 구성하여 운영
   - 참여 교사들의 교육복지에 대한 인식 제고
   - 입시 중심의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 마련

3. **사업기간** : 2010년 3월 1일 부터 ~ 2011년 2월 10일 까지

4.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명		운영 방식	대상 학생
1. 어린이 독서교육	어린이 학교독서문화교실월	2회	• 대상 : 초등 5개교(100명)
	어린이독서캠프	년1회	• 대상 : 초등(100명)
2. 청소년 독서교육	청소년 학교독서문화교실	월1회	• 대상 : 중등 10개교 160명
	주말 독서교실	월1회	• 대상 : 중학생 30명
	청소년독서캠프	년1회	• 대상 : 중학생 80명
	학교독서캠프	년2회	• 대상 : 중학교 2개교 70명
	독서문학기행	년2회	• 대상 : 80명
3. 독서 행사	독서한마당	년1회	• 대상 : 고른기회 사업대상 전체
4. 맞춤형 독서교육	독서 멘토링	월 4회	• 대상 : 초중고 60명
	찾아가는 독서교육	월 4회	• 대상 : 초등 25명
5. 교사 연수 및 정책개발 프로그램	교사연수 및 워크숍	월1회	• 대상 : 40명
			• 상세현황 : 고른기회 참여 교사(40명)
	교육정책토론회	년1회	• 대상 : 60명 교사
	문학기행	연1회	• 읽고살고/책만세 교사 30명
6. 사업 평가 및 자료보급	사업평가	년2회	• 고른기회 참여 기관자료제작 및 보급
		년1회	• 전북도내 초중고 150개교

2010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은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의 참여 비율 높이고,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또한 - 독서교실-문화체험-독서캠프-독서한마당-사업평가 일관성 있는 사업일반 교사도 독서교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맨토링 사업 등 일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이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3년차이니만큼 독서교육을 통한 교육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이를 자료화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교육에서의 소외계층 지원 사업 즉 교육복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입시교육 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 현실에서 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2010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사업계획

1. 회원을 위한 연수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초청강연 및 교사 아카데미 운영
- 교사모임 운영 및 연수 강화
-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 역량 강화

2. 교육소외 계층 교육지원 사업 -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 어린이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 청소년 독서교실 및 독서캠프
- 독서 멘토링 및 찾아가는 독서교육
- 교사 연수 및 교육복지 정책 개발
- 책 문화 축제 및 자료 보급

3.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노력
- 청소년위원회 구성 노력
- 어린이/청소년 체험교실 운영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고등학생을 위한 사업 진행
- 청소년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

4. 전북 교육네트워크 구성 및 교육자치 선거 대응
- 시민단체, 학부모 등과 연대 강화
- 교육소외 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 전북교육의 정책 대안 마련 및 실천운동
- 교육자치 토론회 개최- 4월말 경
- 학부모,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제안 운동

5. 통일운동과 통일교육의 일상화 : 통일위원회
- 희망 2010, 제1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개최(6월)
- 평양 어린이 콩우유 보내기 사업 지속 전개

6. 문화원 역량 강화 및 회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 제 2회 문화원 체육한마당 및 배드민턴 대회
- 기행 및 체험 활동
- 홈페이지 및 교육소모임 활성화

2010 문화원 주요 사업 일정

월	월별 사업 내용
1	· 2009 집행부 정비 및 사업 계획 확정
	· 고른기회 배움터 선정
2	· 정기총회
3	· 2009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시작
	· 중등 독서교실 - 오리엔테이션
	· 학교독서문화교실(초, 중등) 시작
	· 소식지 14호 발간
4	· 환경 생태 역사 기행
	· 교육정책 세미나-교육위원, 교육감 선거
5	· 제 2회 체육한마당 및 배드민턴 대회
6	· 6/12 제10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 소식지 15호 발간
7	· 고른기회 상반기 평가 워크숍
8	· 초·중등 독서캠프
9	· 교육이야기마당
10	· 환경 생태 역사 기행
	· 소식지 16호 발간
	· 책 문화축제
11	· 교육이야기마당
12	· 소식지 17호 발간
	· 문화원의 밤
	· 제4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상 시상
연중	· 학교독서교실(초중등) 및
	문화원 독서교실(초중등) 월 1회,
	· 운영위/집행위원회 회의
	· 각 부서별 모임/교사소모임별 모임.
	교육정책연구모임

2010년 임원 및 집행부 소개

• 임원 소개

직책	순	이 름	직장
이사장	1	이미영	전주공고
이사	2	김명희	부안 보안중
	3	노장환	전주 서신초
	4	문채병	고창교육청
	5	박기업	전주고
	6	서진용	정읍입암중
	7	송승룡	김제 원평초
	8	이영환	전주 인후초
	9	장재성	이리남중
	10	정우식	익산 이일여고
	11	정은숙	완주 봉동초
	12	주중일	익산 금마초
	13	최병흔	전북 체육중
	14	최순삼	순창 복흥중
	15	한은수	익산 원광정보예술고
감사	1	남상팔	전주공고
	2	조경희	전주 인봉초
고문	1	김윤수	전주 솔내고
	2	박일범	순창제일고
	3	송병주	(사)지역농업연구원
	4	이광철	전 국회의원
	5	최규영	진안문화원장
자문위원	1	박세훈	전북대 교육학과
	2	안도현	시인, 우석대 문예창작과
	3	황만길	(사)지역농업연구원

(이상 가나다 순)

• 집행부 소개

원장 **최순삼**
(순창 복흥중 교사)

부원장 **정우식**
(이일여고 교사)

부설 연구소장 **최병흔**
(전북체육중 교사)

사무처장 **노장환**
(전주서신초 교사)

조직국장 **류정아**
(전주여울초 교사)

조직부장 **조인향**
(전주금평초 교사)

연대사업국장 **임동연**
(기아자동차)

정보통신국장 **구자상**
(이리공고 교사)

총무국장 **이선화**
(사무실)

정책기획실장 **최선호**
(완주봉서중 교사)

편집국장 **김진성**
(완주비봉초 교사)

편집부장 **전지민**
(정읍한솔초 교사)

교육연수국장 **손춘임**
(전주여고 교사)

독서문화교육실장 **최봉석**
(전라고 교사)

어린이독서교육국장 **최상렬**
(전주삼천남초 교사)

청소년독서교육국장 **황희경**
(전주양지중 교사)

청소년문화국장 **유인선**
(전주신일중 교사)

통일교육실장 **김현봉**
(전주평화중 교사)

통일교육국장 **신성하**
(전주완산초 교사)

참된 '권위(權威)'가 있는 교육감을 원한다.

최 순 삼
(본원 원장)

6·2 지방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 왔다. 이번 선거는 지방 행정 권력뿐만이 아니라 지방교육자치 권력의 핵심인 교육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계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면서 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언론에 보도된 인사비리 중 하나로 장학관, 장학사 '매직'과정은 낯 뜨겁기도 하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또 시시때때로 터지는 각종 납품 비리, 공사 비리 등으로 동네북이 되어버린 교육계가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곪은 곳을 도려내겠다고 나서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수순에 정치적 계산이 있다고 보는 이도 있다. 그러나 교육 권력의 중심에 있는 교육감과 교육행정 관료들의 책임을 백번 물어도 싸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교육계의 권위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2월 2일 교육감 예비후보로 오근량, 신국중 후보가 등록하면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현 최규호 교육감의 불출마 선언, 박규선 교육위 의장의 예비후보 등록, 이어 고영호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수도 등록하였다. 3월 중순 경에는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에서 추천한 시민후보가 등록을 한다고 한다.

전북 교육감은 시·군교육장을 비롯한 약 2만 명의 교원과 4천 명의 교육관련 공무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한다. 이렇게 큰 교육 권력이므로 헤게모니(주도권)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 될 수밖에 없다. 예비후보들은 자신만이 전북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학력신장, 사교육비 경감, 인성교육, 학교폭력대책,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교육재정확보방안, 자율형 사립고 지정문제, 소규모농촌학교 통폐합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비법이 있는 것처럼 연일 정책을 내놓고 공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이 집중된 자리일수록 권위 없는 책임자의 헤게모니 장악과 행사는 권위주의와 관료주의로 이어져 각 종 비리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 그람시는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유지하는데 권력자의 힘만이 아니라 통치 받는 사람들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발적 동의는 '동의된 권력'을 말한다. '동의된 권력'이 권위이다. 20년 이상 아이들 앞에서 선 경험과 상식으로 교육감도, 교육장도, 교장도, 교사도 권력의 행사는 '동의된 권력'으로 해야 한다. 권위 없는 권위주의 행정은 학연, 지연, 혈연 중심의 인사 정책을 불러오고, 비판을 막아 온간 비리를 불러온다.

최근 발간 된 <시사저널,1063호>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그 중 교육계 비리 관련 질문 몇 가지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교육 비리에 관한 설문조사로, '교육비리가 전국에 걸쳐 있다'는 응답이 73%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비리를 '해당 교육 공무원의 개인 비리'로 보는 교사는 14명에 불과 했지만, '최고위층까지 비리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교사가 30명이다. 또 교육계와 교단을 움직이는 특정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교사가 44명으로 '없다',라고 보는 27명보다 훨씬 많았다. 교육비리 중 가장 심각하다고 보는 분야는 역시 '납품 · 공사 비리' 42명과 '인사 비리' 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권력의 권위가 심각하게 추락되어 작동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들의 잘 꾸며진 어떤 정책 공약도, 화려한 경력도, 자신만 정당하다는 선명과 명분만을 앞세우는 목소리도 별 의미가 없다. 추락된 권위로 어떤 일이 가능하겠는가? 경력과 선명성만으로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교육 권력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동의된 권력' 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내오는 후보가 당선에 가까이 갈 것이다. 분명한 교육철학과 소신 없이 권위주의 권력에 면종복배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2학기에는 겸손하면서도 권위를 가진 후보가 교육자치 권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교육감 선거의 의미는 교육 권력의 참된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야 한다.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교육 권력의 권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동의된 권력' 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내오는 후보가 당선에 가까이 갈 것이다. 분명한 교육철학과 소신 없이 권위주의 권력에 면종복배하는 교육자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

교육 비리에 관한 설문조사로, '교육비리가 전국에 걸쳐 있다'는 응답이 73%이다. 이번 서울시 교육청 비리를 '해당 교육 공무원의 개인 비리'로 보는 교사는 14명에 불과 했지만, '최고위층까지 비리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교사가 30명이다. 또 교육계와 교단을 움직이는 특정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교사가 44명으로 '없다',라고 보는 27명보다 훨씬 많았다.

용산에서 바라본 순천만

순천만기행-용산에서

기행 참가기

생태자원의 보고 순천만 기행을 다녀와서

류 정 아(전주여울초)

순천만 여행을 다녀온 지 벌써 두 달이 더 지났다. 지난해 11월 22일, 초등교사 8가족 30여명은 순천만 갈대밭을 찾아 늦가을 여행을 다녀왔다. 초겨울에 접어드는 때였지만 햇살은 봄날 같았고 바람은 가을날 그것 이었다.

순천만 하면 둥근 수련잎 모양의 칠면초 군락지(처음엔 그것의 이름도 몰랐다.)와 끝없이 너른 갈대밭 그리고 S자형 수로가 떠오르리라.

도착해서 보니 순천만 연안의 대대포구를 중심으로 생태체험관과 탐사배 선착장이 있고 무진교라 불리는 아치형의 나무 다리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갈대숲이 있었다.

생태체험관 탐방과 점심 식사를 마친 뒤 순천만 탐사배를 탔다. 이 배는 왕복 40여분쯤 소요되는데 S자 형태의 포구 물길을 중심으로 갯벌과 그 주변에 사는 새와 식물들을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낮이라 많은 새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해설사의 해설이 곁들여져 더욱 흥미로웠다.

탐사배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순천만을 끼고 길게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용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용산' 에 올라 순천만을 한눈에 굽어다 보기로 했다.

선착장 옆에는 무진교가 있었다. 소설가 김승옥의 소설 '무진기행'에 나오는 지명 무진이 바로 이 곳 순천만 갈대밭 일대다. 사실 무진이란 지명은 없다. 안개나루란 뜻을 가졌지만 실제 지명은 아니다. 소설에서 따다 이름 붙인 '무진교' 위로 두 줄기의 사람들 행렬이 끝없이 오고갔다.

갈대밭 길을 따라 1km 이상 안쪽으로 걸으면 '용산'으로 오르는 입구가 나온다. 산이 그다지 높지 않아 너댓살난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오를 수 있는 산이 '용산'이었다. 15분쯤 산을 오르니 툭 트인 곳에 '용산 전망대'가 있다.

그 유명한 칠면초 군락지가 기묘한 모양으로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미키마우스

저 멀리 갯벌 너머에 펼쳐진 대형 흑두루미 모양의 흑미 논은 밑둥만 남았어도 그 형태를 뚜렷이 보여줘 감탄을 자아냈다. 너른 들판 위로 흑두루미 두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의 귀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우주에서 둥둥 유영하는 우주선 같기도 하고 개구리가 올라앉아 쉬면 제격인 수련잎 모양 같기도 한 칠면초 군락지는 계절마다 그 색을 달리해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저 멀리 갯벌 너머에 펼쳐진 대형 흑두루미 모양의 흑미 논은 밑둥만 남았어도 그 형태를 뚜렷이 보여줘 감탄을 자아냈다. 너른 들판 위로 흑두루미 두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순천만은 자연 그대로의 포구와 갯벌이 살아있어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 순천 사람들은 그것들을 사랑하고 잘 지켜냈기에 순천만이 2006년에 람사협약에 등록 되었고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가 되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지역에는 어떤 생태자원이 남아있을까. 부러움 반 경외심 반, 난 반 반 섞인 그런 마음으로 순천만을 다녀왔다.

얼마 전, 2월에 학교 선생님들과 다시 한번 순천만을 찾을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맙소사, 관광객 중 일부가 만조 물때를 모르고 용산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갈대밭을 가득 채운 바닷물에 갇혀 버렸다. 신발을 벗어 양손에 들고 다리 난간 위를 조심조심 걸어오던 사람들. 그들은 갈대밭에 세워둔 허수아비처럼 우스꽝스러웠다.

순천만에 갈 때는 만조 시간을 꼭 확인해 두시라. 참, 점심 식사로는 짱뚱어탕을 꼭 맛보시라. 순천만에서는 흔한 짱뚱어지만 흔치 않은 맛을 보여주리라.

여행은 나를 깨운다.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살아갈 힘이 불끈불끈 생겨난다. 그래서 난 여행을 좋아한다.

2010년이다. 올해는 어떤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벌써부터 인터넷을 뒤적거린다.

'통일사랑방모임'에 참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강연도 듣고 공부도 하며 기행도 갑니다.

- 3월 17일(수요일) 첫 모임을 하고
- 4월 3일에는 1박 2일로 철원 민통선 기행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김현봉**(011-9640-5388)

인물탐방

이번호의 인물탐방의 주인공은 우리 문화원으로부터 공로상과 으뜸회원상을 각각 수상한 **이영환**선생님(전주인후초)와 **노영윤**선생님(김제 초처초)입니다. 두분과 오랜 기간 가까운 친분을 유지해온 본원 조직국장 **류정아** 선생님(전주여울초)이 정리해주셨습니다. *〈편집자 주〉*

함께 길을 가고 싶은 사람들
이영환 · 노영윤 선생님을 생각하다

이영환 선생님

옛날 옛날에~

읽고살고 어린이 독서캠프 개강식날. 아이들에게 하셨던 인사말이 무척 기억에 남는다.

"애들아, 있잖아, 선생님이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 줄게. 옛날에 말이야 무서운 호랑이가 살았는데……."

다소 준엄하게 생긴 남자 선생님이 잔뜩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가 때론 아이처럼 신나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나간다. 낯설고 어색한 독서캠프 첫날, 그제서야 아이들 눈에 생기가 돌면서 이야기 속으로 쏘옥 빨려들어온다. 아하, 아이들에게는 저렇게 다가가야 하는구나. 후배 교사들은 한 수 배운다.

이영환 선생님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이들을 사로잡는다.

선생님은 해결사

독서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조별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고 지도교사 선생님께도 어깃장만 놓는 아이들이 있게 마련이다.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이 생기면 어김없이 이영환 선생님이 약이다. 선생님께만 다녀오면 아이들 마음의 문이 스르르 열려서 오히려 다른 아이들보다 더욱 열심이다.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 누구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기 때문이 아닐까.

칭찬의 달인

이영환 선생님은 또 칭찬의 달인이시다.

그의 칭찬은 중독성이 있다. 그의 칭찬을 자꾸 듣다보면 정말 잘하는줄 알게 된다. 아마 그 점을 겨냥하지 않나 싶다. 정말 잘하는 줄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마찬가지다. 이영환 선생님의 칭찬 덕에 문화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교사가 한 둘이 아니다.

그의 칭찬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이다.

이영환 선생님은 마을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 같은 그런 선생님이다. 기회가 된다면 이영환 선생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면서 선배님의 넓고 깊은 그늘 속에 한 번 있어 보고 싶은게 후배 교사들의 바람이다.

지난달 문화원 정기총회에서 다른 어느 때 보다 빛나는 두 사람이 있었다. 바로 공로상을 수상한 전 사무처장 이영환 선생님과 으뜸회원상을 수상한 초등책읽기교사모임의 노영윤 선생님이다.

이영환 선생님은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교사이자 문화원 초등선생님들의 정신적 멘토라 할 수 있고 노영윤 선생님은 배울 점이 참으로 많은 교사이기에 그들의 수상에 진심으로 축하 박수를 보낸다.

노영윤 선생님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

노영윤 선생님의 첫 인상은 다소 강해 보인다. 하지만 입을 열어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친근한 말솜씨와 귀 밑까지 벌어지도록 활짝 웃는 웃음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든다. 행복이라는 바이러스를 주변에 쫘악 퍼뜨리는 것 같다.

노영윤샘이 있는 모임은 언제나 즐겁다. 이것이 그녀의 가장 큰 매력이다.

동원의 달인

노영윤 선생님은 사람 동원의 달인이다. 지지난해, 초등교사 독서논리논술 연수 참가자가 부족해 연수가 폐강될 위기에 놓인 적이 있다. 보통 사람은 한 명도 모집하기 어려운 연수생을 다섯명 넘게 모집한 이가 노영윤샘이다. 그만큼 그녀의 말에는 신뢰가 있고 평소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는 뜻이리라.

한 지인의 어머니가 직접 재배한 오미자를 그녀가 나서서 엄청 팔아준 예도 있다.

그녀는 따뜻하다.

#박하사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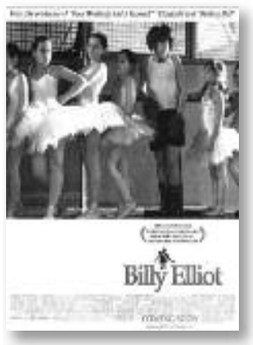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녀와 얘기를 나누면 막혔던 가슴이 속시원히 뚫린다. 남들이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문제도 그녀는 유머를 섞어 건드리기도 하고 어느 땐 시누이처럼 잔소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기도 하고 해결 못한 고민을 풀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다.

그녀는 시원한 박하사탕 같은 존재다.

그녀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행운이다.

2010, 아이들과 이 영화 보며, 함께 자라 볼까요?

신 은 철(삼례중)



선생님!

경인년 호랑이의 새학기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우주가 우리 앞에 희망차게 펼쳐졌습니다. 가슴이 벅찬 이 순간 갑자기 지난해 어느 날 선생님과 함께 보았던 안성기·박중훈 주연의 영화 '라디오 스타(이준익 감독,2006)'의 한 장면이 떠오르는 건 무슨 까닭일까요?

원치 않는 영월방송국 디제이 일을 맡게 된 왕년의 인기가수왕 최곤(박중훈 분)은 첫 방송하는 날, "첫날에 대한 설렘"을 주제로 한 상투적인 원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신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여긴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 즉흥적으로 방송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파격이 오히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송을 하는 계기가 되지요. 그 장면, 기억나시죠? 내 삶의 '주변(지방)과 진정한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 준 가슴 따뜻한 영화였죠.

새학기를 시작하며 영화 '라디오스타'가 떠오른 것은 제가 올해 새로운 학교로 자리를 옮기게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새롭고 파격적인 학교생활을 하라는 그분의 계시 때문인가요?^^*

오늘은 선생님께 2010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볼만한 영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영화들을 보면서 아이들과 2010년 한해 무럭무럭 자라 봐요. 성장은 아이들만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자고요.

작년 9월, 올해부터 바뀌는 중학교 1학년 새 국어 교과서를 선정하는 작업을 했지요.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출판사의 책을 검토하자니 주마간산 격으로 밖에는 달리 살펴볼 도리가 없었지요. 평소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는 것이 취미인 제 눈에 예년과 다르게 뚜렷이 들어오는 것은 모든 국어 교과서에 영화수업 단원이 새롭게 들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학교 새 교과서에 실린 영화 목록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좋은 영화들입니다. 교실에서 무슨 영화를 봐야할지 고민이시라면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영화명	감독	제작년도	관련 주제	비고
말아톤	정윤철	2005	모성애, 장애	최다수록(7개 출판사)
빌리 엘리어트	스티븐 달들리	2000	꿈, 진로, 가족, 양성평등	영국
아홉 살 인생	윤인호	2004	성장, 가족	
집으로	이정향	2002	고향, 모성애, 성장	
초승달과 밤배	장길수	2003	가족, 장애, 성장	
열세 살 수아	김희정	2007	가족, 모녀 갈등, 성장	
꽃피는 봄이 오면	류장하	2004	꿈, 음악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임순례	2007	여성, 스포츠 정신	
인생은 아름다워	로베르토 베니니	1997	부성애, 유머, 인생, 인간애	이탈리아

당연히 어느 단원보다도 영화 관련 단원을 재미있고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영화들이 선정 되었을까?', '학습활동은 어떤 것들인가?',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실렸나?' 하고 속으로 뇌며 말이지요. '빌리 엘리어트', '말아톤', '집으로' 등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들이 눈에 띄어서 반가웠습니다.

비록 힘든 교육 현실 속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좋은 영화를 즐겨 보며 소통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영화를 즐길 줄 알며, 영화 속에서 나와 또 다른 나인 타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켜, 우리 공동체와 자신의 삶을 온몸으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한 꿈인가요?^^;

선생님, 올해도 아이들과 소통하는 행복한 교실을 위해 우리 손잡고 땀 흘려 봐요.

남북국시대와 정상회담

장 재 성(이리남중)

장면 하나. 서기 733년 7월 신라는 당에서 군사를 내 발해를 칠 것을 요구하자 머뭇거리다가 결국 출병하지 않았다. 이는 732년 무왕 때의 발해는 장군 장문휴를 시켜 당의 덩조우를 선제 공격하고 자사 위준을 죽였으며, 군사를 보내 마도산까지 친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종 때의 당은 발해에게 복수하고자 733년 정월 대규모 군사를 일으켰다. 때가 겨울이고 험준한 산길을 지나던 당군은 군사를 반이나 잃고 성과 없이 돌아간다. 이때 당이 경덕왕 때의 신라에게 압력을 가하여 출병하게 만든 사건이다. 철저한 중화주의자이자 사대주의자인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김유신의 손자를 장군으로 삼아 발해를 남쪽에서 공격하려던 신라군이 큰 눈을 만나 군사가 반이나 죽어 후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전후 사정을 더 살펴보면 신라는 머뭇거린 것이 분명하다.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당과의 관계도 상하지 않게 한 것이다. 이후 신라는 676년 삼국통일 이후 당이 인정하지 않았던 패강 이남의 땅의 영유권을 100년 만에 당에게서 인정받는다.

장면 둘. 서기 761년 11월 나라시대 후지와라 가문의 일본은 각지에서 758년부터 준비한 배 394척과 군사 4만으로 신라 정벌을 준비하였다. 762년이 침공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신라와 일본은 663년 백강구 전투 이후 외교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 일본 정권들이 늘 염원하였던 신라 침공이었다. 그리고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후지와라 가문도 내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신라 정벌을 꾀해 758년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 준비를 시켰다. 그런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경덕왕 때의 신라는 전성기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원인은 발해가 일본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해 건국 이후 발해와 신라는 통상적으로 적대관계로만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은 발해를 설득시키고자 사신을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문왕 때의 발해는 신라 정벌을 원하는 일본에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하며 안정을 선택한다. 이후 발해와 신라는 함경도 해변 쪽을 통하는 무역로(신라도라 한다)를 열고 점차 원만한 관계를 회복한다. 많은 물자를 교류하였고 남에서는 고려가 세워지고 북에서는 발해가 망하자 고려는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

당시에 신라와 발해가 동족의식을 가졌거나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을까?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확고한 역사인식을 가진 나라였고, 당이나 일본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역사인식과 동족의식이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발해는 고려로 그 일부가 흡수되었고 우리는 현재 발해가 우리나라라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발해와 신라는 적대 관계로 시작했지만 점차 동류의식을 가진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고 내부 발전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었다. 강대국 당의 분열책동에도 신라는 적극적으로 발해를 공격하지 않았다. 또 발해도 일본과 동조하지 않고 신라와 교류를 선택한 것이다.

2009년 8월 특사조문단 파견 이후 남북은 3차례 이상의 해외 접촉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논의를 상당히 많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중관계도 변화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특히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별대표가 방북한 이후 6자회담 재개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 오늘 뉴스에서는 북경에서 열린 관련 국가들의 접촉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북한의 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보인다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해 12월 북이 올해 6월 전후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언론에 비치고 접촉이다 아니다 설왕설래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제문제는 1300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주변 정세는 그리 쉽지 않다. 선후 해결 문제도 있을 것이다.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미국의 입장, 남북한 당사국들의 내외적인 문제 등도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이나 북미 관계의 개선 속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역사에서 사례를 볼 수 있듯이 주변국들과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며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본다. 평화와 통일 말고는 별다른 선택도 없어 보인다. 머지않은 장래에 환한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기대한다.

'으뜸회원상'을 수상한 **유춘재** 선생님 (동계중·고)은 여러차례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시상식장에 극구 얼굴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은 그럴만한 사람이라며 유선생님의 미덕이라고 웃음과 박수로 축하해 드렸습니다. 본원 원장이신 최순삼 선생님이 유춘재 선생님을 발합니다. 〈*편집자주*〉

겸양지덕(謙讓之德)의 본(本)=유춘재 선생님

몇 번 전화를 해도 유춘재(동갑내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2월 10일경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으뜸회원상 수상자로 추천 되었다고 하자 '앞으로 나 보기 싫으면 상을 주라'고 하면서 찬바람 나게 전화를 끊은 후여서 찜찜했다.

수상을 거부하는 난감한 상황을 상패 제작키로 한 부원장(정우식 선생님)에게 전했더니, 원래 그 양반 그런 사람이니까 개의치 말고 상을 주자고 하였다. 수상식을 갖는 총회 날은 수상 사실을 비밀로 하고 그냥 총회에 참석케 하자고 했다. 봄비가 섞인 겨울비가 지루하게 3일 이상 내린 2월 중순 몇 차례 전화가 되지 않다가 봄 방학 중 학교일 보러 가기 위해 아침 8시경에 전화를 하자 다행히 총회에 참석은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조금은 미심쩍었다. 2월 22일 총회 날 시작시간이 되어도 유선생은 보이지 않았다. 초등 으뜸회원상을 수상하기로 한 선생님도 늦어져서 수상 순서를 식 뒤쪽에 넣어 수상식을 했지만 결국은 오지 않았다. 다행히 20년 전부터 순창에서 함께 교육운동을 하고, 지금도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통일교육 실장을 하고 있는 김현봉 선생님이 대신 상을 받았다. 그리고 기념 촬영 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달래면서, 유춘재 선생님이 가운데 있다는 생각으로 사진을 찍어 달라는는 주문도 해주셨다.

2월 25일 아침부터 봄비가 사납게 왔다. 순창교육청에 갈 일이 생겨서 상패를 전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임실강진과 순창동계의 중간인 천담 집(10년 전 유선생이 직접 1년 이상 준비하여 지은 집)으로 가겠다고 했더니 9시까지 동계중고로 오라고 하였다.

빗속에서 운암을 지나 섬진강 따라 동계중고로 가면서 20년 이상 유선생과 함께 해온 날들이 새삼 생각 되었다. 돌아보면 언제나 그는 겸손과 양보의 생활방식을 고집해 왔다. 80년대 말 참교육운동이 견결하게 시작될 때부터 항상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단위학교에서 일상적인 학내 민주화 문제에 관한 일이나, 지역 내에서 제도개선 투쟁, 농촌학교 살리기 운동, 수많은 집회나 연수, 기행 등에서도 언제나 뒤에서 모든 일을 묵묵히 해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중 하나는 90년 여름방학 때 일이다. 당시 윤영규 위원장님이 수배를 받고 박일범 선생님과 몇 분의 선생님들과 잠행을 할 때 갑자기 구림중에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다. 걱정과 급한 마음으로 전화를 하자, 방학 중인데도 10인분 이상의 점심을 준비하겠다고 하였다. 구림 중 본관 뒤 그늘 진 벤치에서 김복규, 김현봉, 김한종, 문채병, 박일범, 배진향, 황순임 선생님 등과 함께 유선생이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많은 이야기 하고, 기념촬영을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 사진이 윤영규 위원장님이 돌아가신 후 나온 자서전에 실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다.

2005년에는 전북청소년교육연구소가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으로 재 창립 하여 사무실을 중화산동으로 옮길 때는 직접 트럭을 가지고 와 하루 종일 이사 짐과 비품을 옮기는 데 앞장섰다. 2008년 가을에는 평상시 관심과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색채 치료 강좌를 10차시로 전북청소년문화원과 익산교육시민연대에서 열어 학생과 교사의 건강 지킴에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연수 마지막 날은 자기가 재배한 호박을 수강생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구림중을 첫 발령으로 복흥중, 섬진중, 동계중고에서 20년 이상을 순창과 임실지역 농촌학교에 근무하면서 트럭을 몰고 출근한다. 전주 출신인 그가 손수 집에서 닭도 키우고(토종 닭 유정란이 매우 맛있음), 농사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배운다.

동계중고에 도착하여 빗속 차 안에서 어렵게 상패를 건네주자 위아래로 눈을 치켜뜨면서도 상패를 받아주어 고마웠다. 우산을 쓰고 배웅하는 유선생을 뒤로 하고 순창읍으로 가는 길은 편안했다.

창립 5주년 기념 메세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내는데 온힘을
다하길 바랍니다^^*

참나무 회원님

우리 아이들의
쉼터이자 등대같은 곳이
되어주오

장명환 회원님

희망과 실천의 교육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김홍식 회원님

5살 축하^0^ 100살까지
건강하게 변치말고
쭉쭉쭉
♡♡♡

미솔 회원님

전북교육의 선두적 메카,
청소년교육문화원이여
영원하라!팍팍!!

소신천 회원님

늘 처음처럼 ❀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초강력
해피바이러스를

조명진 회원님

정말정말 축하축하
진심으로 축하축하
발전하시길

전성심 회원님

지금 그대로 쭉
쭉~...

윤영집 회원님

논술연수 겨울에도
기다렸는데...
다양한 교육기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화팅!!!

라이현 회원님

깨어있게 해주는 좋은
강연 부탁드려요

권민지 회원님

창립5주년축하하고요~
입학사정관전형대비
고딩들에게도
독서*문화체험기회를 주세요

김기철 회원님

종달새 가족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듯 빗깔도 다양한 '현호색'

조 경 희 (전주인봉초 교사)

봄이 무르익어 가는 햇살 좋은날. 연초록 잎들이 그려내는 세상은 늘 눈물겹게 아름답다. 굳이 신록예찬을 되새기지 않아도 이 계절엔 창문을 열고 자연이 그려내는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몸도 마음도 빠져들어 가게 된다.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눈을 녹이며 피어난 노란 복수초. 둥근 철퇴모양의 앉은부채. 두 귀 쫑긋한 보송보송 새끼노루귀. 야생화를 담는 사람들의 애를 태우던 변산바람꽃....이른 봄에 피어나는 이런 야생화들이 그 짧은 봄날에 얼른 꽃을 피워내고 결실을 맺은 후 우리들의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질 무렵에 비로소 나타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꽃들이 있다. 바로 현호색, 양지꽃, 피나물. 산자고. 얼레지, 꽃다지. 솜나물. 광대나물. 별꽃. 각시붓꽃. 개불알풀꽃등이다. 이른바 선두주자 다음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라고나 할까. 이맘때쯤이면 낮은 산자락이나 논둑. 밭둑. 작은 실개울가 언저리 어디서나 우리 들꽃들이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며 옹기종기 피어난다. 현호색은 바로 그 꽃들 중 하나이다. 처음 이 꽃을 마주 대하였을 때 참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이름도 영 생뚱맞고 꽃모양도 특이하고 아무튼 현호색이란 식물이름이 내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는 봄날. 소롯한 오솔길 옆에서 연보랏빛으로 피어난 현호색이 어찌나 많이 보이는지 현호색을 만나면 늘 반갑고 정겨운 느낌을 받게 된다. 희랍어로 현호색의 학명이 코리달리스(Corydalis)라고 하는데 이는 '종달새'란 뜻이라고 한다. 꽃모양이 종달새의 깃과 같이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는데 그래서인지 현호색은 마치 종달새 가족이 올망졸망 모여 있는 듯도 싶고 하늘로 막 비상하려는 한 떼의 새들의 몸짓으로도 보여 진다. 현호색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 새의 머리와 몸통처럼 생긴 고깔모양의 앞부분과 입술모양 또는 날개모양으로 보여 지는 두 장의 포라 불리는 아래 꽃잎인데 참으로 신기하게 생겼다. 옛부터 현호색은 뿌리까지 거두어보면 속이 노란색인 덩이줄기가 나오는데 이를 '현호'라 부르며 약으로 쓴다고 전해내려 온다. 현호색의 매력은 무엇보다도 그 다양한 빛깔에 있다. 주로 보라색 계열이긴 하지만 다소 푸른빛이 도는 현호색. 연분홍빛 현호색. 바다 닮은 비취색 현호색 그리고 흰색 현호색까지……. 여러 송이의 꽃들이 한 꽃대에 조롱조롱 매달려 피어있는 현호색 무리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빙긋이 웃음이 지어진다. 현호색은 잎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모두 다르게 불리기도 하는데 잎이 대나무처럼 길쭉한 댓잎현호색, 잎에 흰점박이무늬가 있는 점현호색, 잎이 아주 잘게 갈라진 애기현호색, 고운 자줏빛으로 다소 늦게 피는 들현호색, 포의 모양이 갈퀴처럼 생긴 갈퀴현호색도 있다. 우리 야생화들은 높은 산에서는 다소 늦게 피어나는데 작년 태백산 산행길에서는 사월에도 눈이 내렸었다. 사월에 내리던 그 눈. 때늦은 봄눈을 맞으며 피어난 유난히도 빛깔 고운 현호색과 얼레지가 새삼 생각이 난다. 싱그러운 물방울을 매달고 총총히 피어있는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상 깊게 자리하고 있음은 자연만이 우리가 한결같이 품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 그날은 우리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갈퀴현호색도 처음 만나 무척 기뻤던 날이었기도 하다. 그러고 보니 현호색과의 특별한 만남이 또 하나있다. 그 귀하다는 흰색 현호색이 완주군 어딘가에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는 정신없이 카메라를 챙겨 달려가 셔터를 누르던 일도 기억이 난다. 현호색과 아주 비슷한 식물로는 산괴불주머니가 있다. 그러나 괴불주머니류에는 덩이줄기가 없다. 들꽃의 향연이 이어지는 이 봄날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보자. 아마도 발길 닿는 길목마다 키작은 야생화들이 우리를 반겨줄 것이다. 그러면 우린 좀 더 몸을 낮추고 들꽃과 눈을 맞추자. 그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 채 어느덧 산 정상에 올라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회원동정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 신입회원(가입일순)

정수진(전주공고)
주미희(군산북중)
이정옥(전주만수초)
이용례(시민회원)
하수정(전주고)
최상진(완주봉동초)
소병혁(전주공고)
김세진(완주이서초)
양종천(완주봉서초)
김숙현(완주이서초)
진상덕(순창팔덕초)
방미옥(익산왕궁중)
박현숙(진안동향중)
노경태(순창동계고)
안정이(순창동계중)
송 인(익산원광여중)
지정만(시민회원)
노상규(시민회원)
최윤경(시민회원)
천순영(시민회원)
채규산(시민회원)
신진규(전주공고)

▶ **이신영**(전주곤지중)선생님께서 지난 12월에 결혼하셨습니다. 결혼 축하드리구요 곧 기쁜소식도 들려주세요.

▶ **정영민**(전주기린초)선생님께서 1월에 결혼하셨습니다. 새로운 가정에 큰 복을 기원합니다.

▶ **본원 고문인 박일범** 선생님이 3월 2일자로 순창제일고등학교 개방형 초빙교장으로 임용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교육운동을 시작하여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셨기에 기대가 큽니다. 특히 농촌학교의 어려운 교육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모델을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하는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본원 회원인 박일관**(설천중고) 선생님이 3월 정기인사에서 익산교육청 장학사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은 교육운동을 하면서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구파이기도 합니다. 익산사립학교에서 시작한 선생님의 교직생활이 익산교육청 장학사로 다시 시작하여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위한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 **본원 회원인 이덕금**(전주솔빛중) 선생님이 3월 정기인사에서 정읍교육청 인턴장학사에서 익산교육청 장학사로 승진 발령이 났습니다. 조용한 성품으로 언제나 매사에 꼼꼼하시고, 본원 행사에도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익산에서 좋은 일 많으시고 좋은 활동 기대합니다.

▶ **본원 이사인 한은수**(원광정보예술고)교장 선생님 장남 한정륜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26일 학교강당에서 훈훈하고 소박하게 치러졌다. 교장선생님의 배려와 온화함, 성실함을 닮은 정륜군의 앞날에 축복과 희망이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 **신진규** (전주공고) 선생님께서 지난 2월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장에 선출되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육단체 소식

* 익산농교연, 정기총회 개최

익산농촌교육연구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 오후 3시, 함열읍사무소 회의실에서 50여명의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2003년부터 함열지역을 중심으로 성당, 웅포, 함라지역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익산농교연은 농촌학교, 지역아동센터,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수환**(성당초 교감, 회원)선생님이 회장으로 재임되었고 이미영(이사장), **양병찬**(공주대, 회원), **천호성**(전주교대, 회원)선생님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농촌교육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익산농교연의 힘찬 활동을 기대해본다.

* 익산시민대책위, 자율형사립고 반대 성명서 발표

익산교육시민연대(공동대표:**강유희**, **최경애**, 회원)가 소속된 익산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반대 익산시민대책위원회는 2월 25일 '학교 이기주의에 불과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설립을 반대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책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자사고 선정신청을 한 익산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에 대해 자진 철회를 촉구하고, 자사고 전환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운동 전개를 천명했다.

* 전북농촌교육연구회, 지역 네트워크 체제로 확대 개편키로

전북농촌교육연구회(이하 농교연)는 지난 2월 26일 지역농업연구원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4월중 농촌지역교육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체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교연이 그동안 농촌교육과정 연구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네트워크는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지역, 학교간 농촌교육활동, 교육정책 등 지역간 정보 교류와 지역교육공동체 형성에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인사동정

중등

이름	구임	신임
강요현 선생님	전주생명과학고	전라고
고재근 선생님	전주공고	전주영상미디어고
김길현 선생님	진안백운	진안교육청
김병옥 선생님	이리남중	익산부천중학교
김수경 선생님	전주영상미디어고	완주한별고
김양근 선생님	고산고	전주영상미디어고
김완수 선생님	전주공고	전북기계공고
김윤자 선생님	이리동중	익산부송중
김정옥 선생님	김제여중	이리북중학교
김정희 선생님	순창구림중	전주우전중
김종희 선생님	전주우아중	온고을중
김항윤 교육연구사님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전북교육연구정보원
김현주 선생님	익산어양중	전주아중중
김혜선 선생님	완주고산고등학교	전라고
문채병 선생님	전주생명과학고	고창교육청 순회
박일관 장학사님	무주설천중교사	익산교육청
박일범 교장선생님		순창제일고
백하나 선생님	전주공고	경기 남양주 화광중
서진용 선생님	정읍고부중	정읍입암중
소신천 선생님	전주아중중	익산부천중
신은철 선생님	장수장계중	완주삼례중학교
신행숙 선생님	부안고등학교	전주영상미디어고
양은희 선생님	전주공고	한별고
오지나 선생님	산내중학교	남원한빛중
유상우 선생님	전북외국어고	전주솔내고
이덕금 선생님	전주솔빛중	익산교육청
이동욱 선생님	고산고등학교	온고을중
이동욱 선생님	전주공고	이리공고
정문옥 선생님	전주공고	경기 안산시 선부고
정영미 선생님	고산고등학교	전주영상미디어고
조봉오 선생님	김제여중	남원한빛중
주미희 선생님	정읍고부중	군산산북중
지성아 선생님	이리영등중	군산산북중
최봉석 선생님	소양중	전라고등학교
최선호 선생님	완주중	봉서중
최영만 교감선생님	전주용흥중	부안위도중
최영순 선생님	임실오수고	전주온고을중
최영주 선생님	김제여중	전주서신중학교
최지윤 선생님	정읍정일여중	한국전통문화고
최형찬 선생님	전주평화중	전주서전주중
한순자 선생님	임실오수고	전라중
현안옥 선생님	장수계북중	장수계남중
홍미숙 선생님	전주온고을중	경기 화성 반송중학교

초등

이름	구임	신임
김광옥 선생님	전주송천초	정읍서신초
김미애 선생님	전주문학초	이리신흥초
김숙현 선생님	완주봉동초	완주이서초
김인순 선생님	진안외궁초	진안마령초
김종필 선생님	전주삼천남초	김제금남초
김혜련 선생님	전주팔복초	전주송천초
노미애 선생님	장수계북초	서곡초
노장환 선생님	서문초	서신초
신기영 선생님	남원도통초	남원왕치초
신화순 선생님	남원운봉초	남원이백초
양종천 선생님	완주봉동초	완주봉서초
염시열 선생님	전주오송초	전주만수초
윤하용 선생님	완주삼우초	인봉초
이명화 선생님	김제교육청 파견	김제원평초 복귀
임경원 선생님	고산동초	운주초
임후남 선생님	김제용지초	김제용동초
장효성 선생님	서문초	서천초
조다인 선생님	전주남초	효림초
조인향 선생님	정읍도학초	전주금평초
천영숙 선생님	전주신성초	김제부용초
최원진 선생님	익산함열초	부안행안초

" 인사이동에 빠진 회원이 있으시면 문화원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

좋은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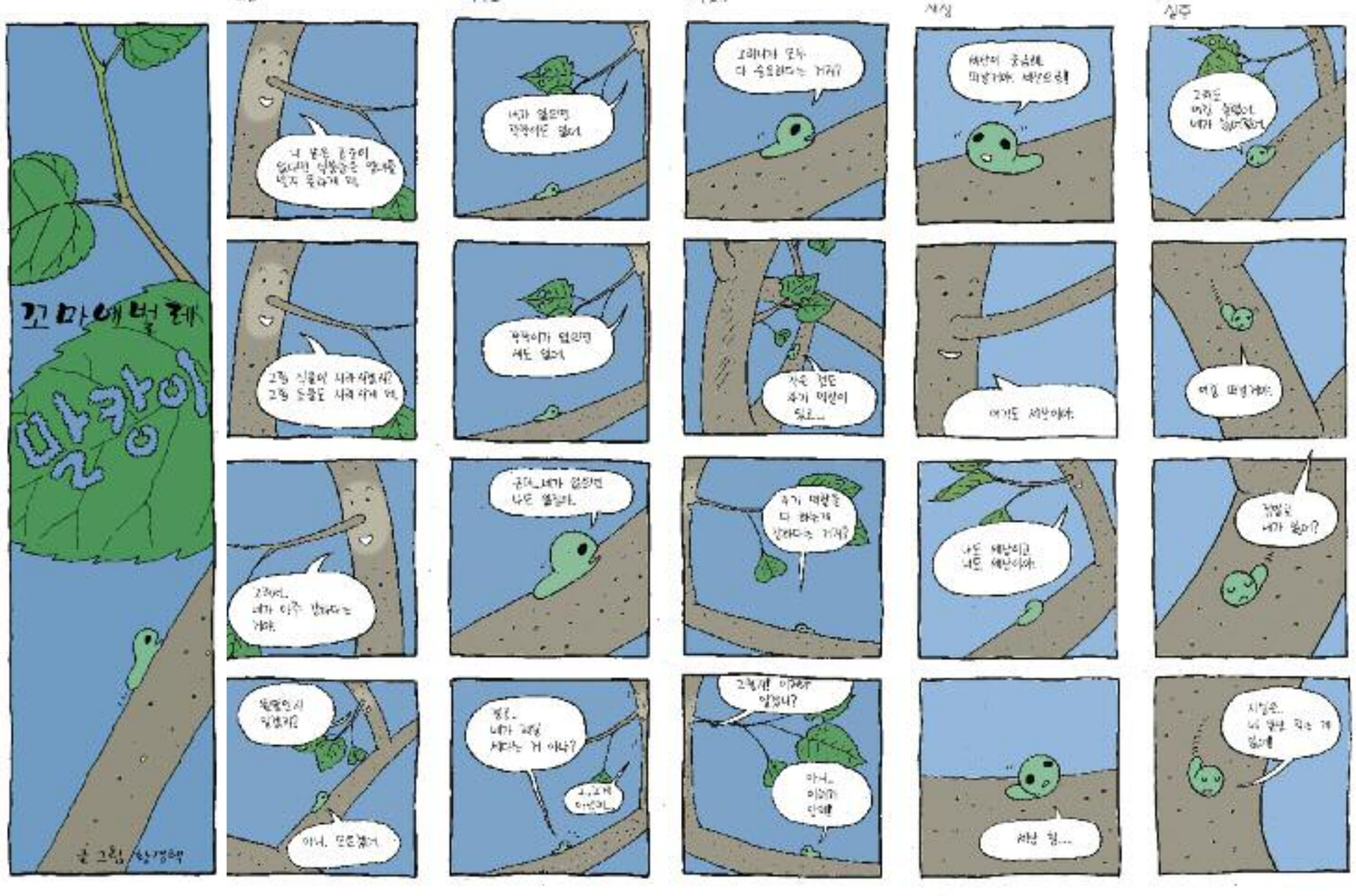
후원 계좌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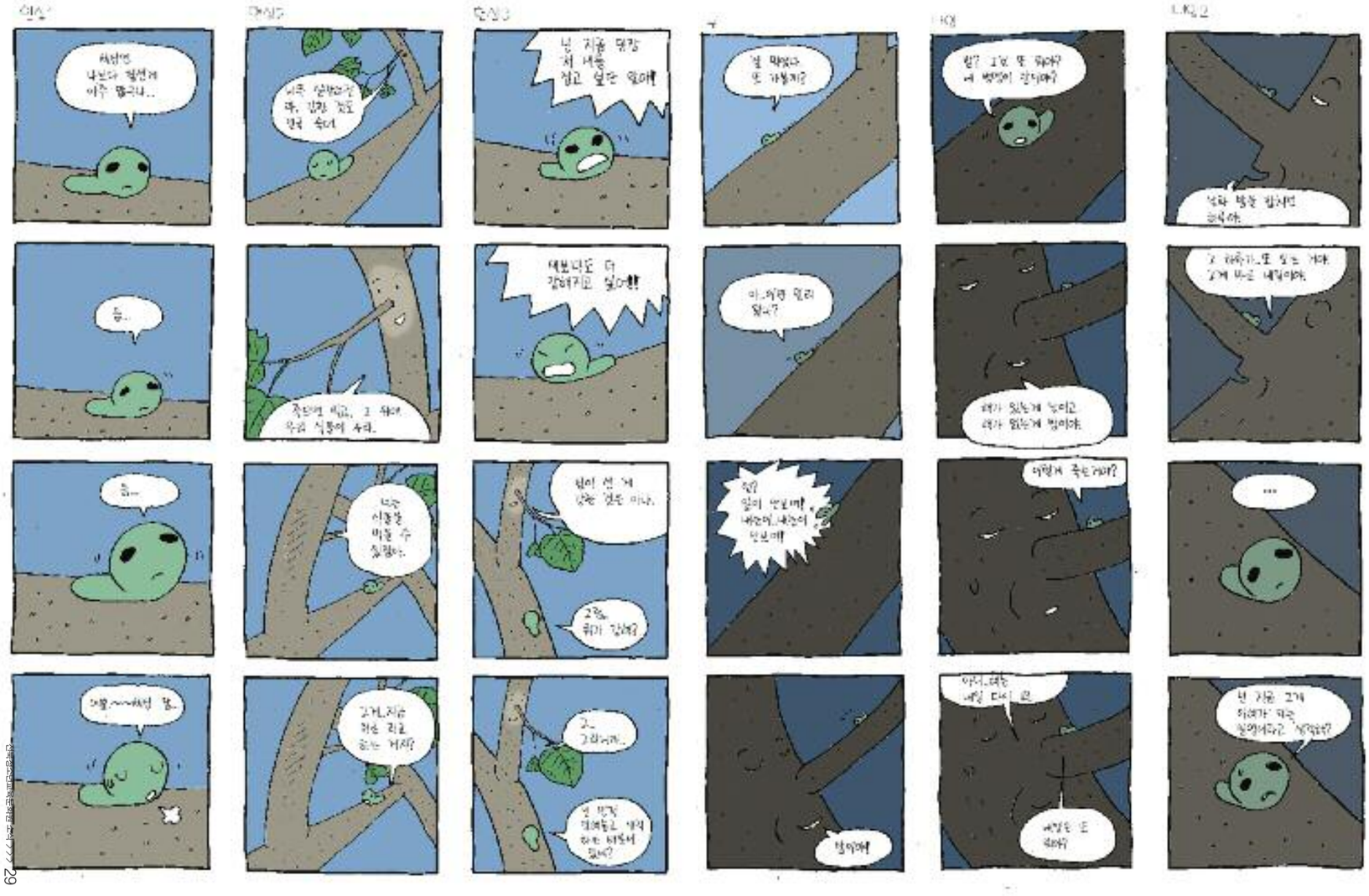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부족 및 기타사유로 출금이 안된 경우 다음 월에 합산하여 출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딸랑이

글/그림 황경택


꼬마애벌레
딸랑이
글 그림 황경택
나 같은 존재이 없으면 식물은 얼마든 번식 못하게 되
그럼 식물이 사라지면? 그럼 동물도 사라지게 되
그저... 네가 이주 밉다는 거야.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모른척해
내가 없으면 세상이 엉망이 될 거야.
흥. 내가 그렇게 쓰레는 거 아냐?
그, 그럴 리가...
그게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이상한 건 아냐
저런 힘...
시끄러. 너 같은 꼬마애벌레가 뭘 알아?


하암~ 나보다 정선에 이주 많구나...
등..
흐...
으아~~~배고 봄.
이곳 삼림은 주, 감자 또도 먹을 수이
주인의 이곳, 그 외에 우리 식물이 수리.
나도 시들을 이길 수 있을텐데.
그거, 지금 하는 리로 하는 거지?
넓은 지금 먹을 처 너무 심고 보은 일이네
세보다도 더 강해지고 싶어!!
힘이 센 거 강한 것은 아냐.
그럼, 뭐가 강해?
그, 그렇네...
넌 지금 강해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니?
설 먹었다 또 가볼까?
미..뭐라 말리 있니?
악! 알이 빈보이! 내눈에..내눈의 빈보이!
아니... 이상한 건데
힘이야!
참? 그보 또 뭐야? 너 벌써 강하이?
네가 있는게 당이고 네가 없는게 정이야.
어떻게 죽는거야?
아니..더는 내일 다시 고
세상은 또 이래?
넌 지금 그게 하여가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
그 하하기도 또는 거야. 그게 무슨 내일이야.
...

생각의 좌표 | 저자 : 홍세화 / 펴낸 곳 : 한겨레 출판

손 춘 임(전주여고 교사)

진정한 자유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 폭넓은 독서, 열린 자세의 토론, 직접 견문, 성찰을 권유하는 ←생각의 좌표→는 물신(物神)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오직 '가진 것'으로만 남들과 견주는 세상,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드러내 놓고 내보이는 사람들의 당당함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우울하다, 참 외롭고 쓸쓸하다'를 되뇌며 세상에 냉소를 날리고 있을 때 만난 책이 있다.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외롭고 쓸쓸하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란 물음을 던지는 소수가 있지 않더냐? 그 소수에 의해 이나마 덜 비인간적인 사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서로 위무(慰撫)하고 격려하자고 속삭이는 책. 이 땅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뜨거운 애정을 보이는 이 책 때문에 세상을 비웃던 내가 부끄러워졌다.

이 책은 부끄러운 나에게 묻는다. 너는 네 생각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부모로서 너는 네 자식에게 좀 더 살맛나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 교사인 너는 항상 함께 하는 아이들에게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공부의 즐거움, 자아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진정한 자유인의 길을 살며시 열어 보여주고 있는가?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너는 후배들에게 발자국 어지러운 길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얼마만큼의 힘을 보탤 수 있는가?

나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책.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전망이 보이지 않던 20여년의 세월을 이방인으로 보낸 뒤, 다시 선 이 땅. 그리웠던 내 땅에서 계속 살아갈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내의 말에 설득하지도 동의하지도 못하는 저자의 쓸쓸함이 절절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며 미안한 마음이 드는 책. 마음 둘 곳 없어 세상을 냉소하던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하는 삶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 책. 가슴 속 깊은 곳에 품었던 세상을 향한 꿈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상상력과 지난(至難)한 그 과정을 유쾌하게 즐길 수 있을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책. 이 책은 바로 홍세화 씨가 쓴 <생각의 좌표>다.

진정한 자유인,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기 위해 폭넓은 독서, 열린 자세의 토론, 직접 견문, 성찰을 권유하는 <생각의 좌표>는 물신(物神)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잃고 헤매는 우리들이 찾아야 하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오늘은 서민이지만 내일은 서민이 아닐 것을 꿈꾸며, 오늘의 자신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 튼튼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항상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저당 잡히고 고단한 삶을 서로에게 강요하는 우리에게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란 물음을 던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하는 외롭고, 쓸쓸한 <생각의 좌표>. 찾아가야 할 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버린 우리를 안타까이 부르는 <생각의 좌표>를 만나보자.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끌어안고 가야할 길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내 작은 손을 내밀고 싶다. 우리 함께 손잡고 우리가 살고자 하는 세상을 향해 서로를 위무하고 격려하며 천천히 걸어가자고. 그 머~언 여정(旅程)을 유쾌하게 수다 떨며 즐겨보자고. 더 이상 세상이 우울하지도, 외롭고 쓸쓸하지도 않도록…….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blue21.or.kr)의 [통일마당-중등]의 13번에 올려져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 / 후원회원 가입 원서

회 원 ( ), 후원회원 ( )

1. 개인 정보

이 름	(남 , 여)	생년월일	
학 교 명		담당교과	
학교주소		학교전화	
손 전 화		집 전 화	
E - mail			
자택주소			

2. C M S 자동이체 (아래 사항을 작성해 주십시오)

예 금 주		주민번호	
계좌번호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		
CMS자동이체	동의함 : ( ) / 동의 안 함 : ( )	월이체액	회비 1만원 + 후원금 ( )만원

3. 관심 분야 (2개 ∨표)

( ) 청소년 정책	( ) 청소년 인권 · 복지	( ) 청소년 문화 · 동아리
( ) 독서 · 논술교육	( ) 초등교육	( ) 통일 · 역사
( ) 지역교육 · 교육자치	( ) 생명 · 환경	( ) 학급운영 · 학교경영
( ) 진로 · 상담	( ) 양성평등 · 성교육	( ) 학부모 교육
( ) 인터넷 · 정보	( ) 학교운영위원회	( ) 기타

※ 홈페이지에(www.blue21.or.kr)서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ttp://blue21.or.kr

가입문의 : ☎ 063-905-0218 fax.063-227-0650

http://blue21.or.kr

이런 선생님을 찾습니다

고른기회 배움터 참여 교사 모집 및 연수

교육소외 아동 / 청소년의 삶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
입시교육이 아닌 교육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시는 선생님!
학생들과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고, 그들과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시는 선생님!
독서와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인지력, 자존감 등 전인적 발달을 꿈꾸시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 진행하는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초등독서교사모임 "**읽고살고**",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에 참여해 주십시오.

2010 고른기회 배움터 교사 연수 및 워크숍

독서교육을 통해 교육소외계층 지원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과 초등책읽교육연구모임 "읽고살고",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 등은 2010년 고른기회 사업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고른기회 배움터 교사 연수 및 워크샵을 갖습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5일(목) 오후 6시
- **장소**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교육실
- **주관**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읽고살고, 책만세
- **후원** :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 **내용** : 초청강연 :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야" 권승호 선생님(영생고 교사)
  2010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의 의의
  2010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진행 방향

*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인 학교독서문화교실, 독서멘토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JeonBuk Teenagers Educational & Cultural Center

http://blue21.or.kr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5-8(3층) / ☎ 063-905-0218 fax.063-227-0650